



1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'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'에서 농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

##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 '머리 맞대'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, 1일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가져  
맞춤형농지지원·농지임대수탁 등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 논의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1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.

동진지사 농지은행은 예산 560억 원을 투입해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 선임대후매도사업,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동진지사는 앞으로도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영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.

농지은행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[www.fbank.go.kr](http://www.fbank.go.kr)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/심정식 기자 sj2113@dumnet